

제18회 목포문학상
당 선 작 발 표



목 포 시

제18회 목포문학상 당선작

구분		부문	당선자	지역	작품명	상금
박화성 소설상		장편 소설	이상권	경기도 용인시	『소녀들의 유랑극단』	5천만원
목 포 작 가 상	본상	문학 평론	김효은	서울특별시	『징후의 시학, 빛을 열다』	6백만원
	작품상	시	김진후	광주특별시 무안군	「어머니 그리기」	4백만원

□ 작품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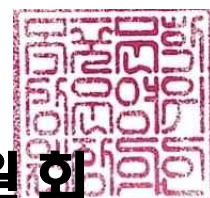
- 분 야 : 박화성소설상(장편소설, 전국), 목포작가상(전장르, 목포연고)
- 접수기간 : '26. 5. 1. ~ 5. 29.
- 접수현황 : 256명(박화성소설상 169, 목포작가상 87)

(단위: 명)

구 분	계		시	소 설	희 곡	평 론	수 필	이동 문학
계	256명		44명	183명	3명	2명	12명	12명
박화성소설상 (전국)	169명		-	169	-	-	-	-
목 포작가상 (목 포출신)	86명	본 상(22)	7	1	1	2	4	7
		작품상(65)	37	13	2	-	8	5
	소 계		44	14	3	2	12	12

2026. 8. 26.

목 포 문 학 상 운 영 위 원 회



제18회 목포문학상 심사위원 명단



목 포 시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제18회 목포문학상 심사위원

부 문	성 명	약 력
박화성 소설상 장편소설	강 동 호	· 現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젊은평론가상, 제2회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수상 · 비평집 『지나간 시간들의 광장』(문학과지성사, 2022)
	소 유 정	· 現 문학과사회 편집동인 · 「비평집 『어떤 사랑의 무대』(민음사, 2025) · 산문집 『세 개의 바늘』(민음사, 2021)
	윤 성 희	· 現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 이상문학상, 황순원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김승옥문학상, 동인문학상 수상 · 소설집 『느리게 가는 마음』(창비, 2025) · 장편소설 『상냥한 사람』(창비, 2019)
	김 숨	·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수상 · 장편소설 『딸기 이론』(민음사, 2026) · 장편소설 『간단후쿠』(민음사, 2025) · 장편소설 『제비심장』(문학과지성사, 2021)
	문 지 혁	· 한무숙문학상, 이상문학상 우수상 등 수상 · 장편소설 『실전 한국어』(민음사, 2026) · 장편소설 『나이트 트레인』(현대문학, 2026) · 소설집 『고잉 홈』(문학과지성사, 2024)

부 문	분 야	성 명	약 력
목포 작가상 본 상· 작품상	시 시조	송경동	· 한국작가협회 사무총장 ·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꿈꾸는 자 잡혀간다』, 『꿀잠』 · 천상병 시문학상, 민주시민언론상, 김진균상, 신동엽창작상 수상
		오봉옥	· 1985, 《창작과 비평》 등단 · 『나비도둑』 『지리산 갈대꽃』, 『붉은산 검은피』, 『나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 『노랑』, 『셋!』 등 · 영랑시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수상
	소설	손홍규	· 2001, 《작가세계》 등단 · 『사람의 신화』, 『봉섭이 가라사대』, 『귀신의 시대』, 『툼은 툼과 잤다』, 『이슬람 정육점』 등 다수 · 노근리 평화문학상, 백신애문학상, 오영수문학상, 채만식문학상, 이상문학상 등 수상
	아동문학	전병호	· 1982,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 前 한국동시문학회장 · 『들꽃초등학교』, 『봄으로 가는 버스』, 『수평선 먼 섬으로 나비가 팔랑팔랑』, 『자전거 타는 아이』 등 · 초등 국어교과서 동시 <몽돌>, <학> 수록 · 세종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천상병동심문학상 등 수상
	희곡 평론 수필	송승환	· 2003, 문학동네 시부문/2005, 현대문학 평론부문 등단 · 現 《쏼-문학의 이름으로》 <문학들> 편집위원 · 『클로로포름』, 『드라이아이스』,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 『측위의 감각』, 『전체의 바깥』 등

제18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박 화 성 소 설 상



목 포 시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박화성소설상

심 사 경 위

심사위원 일동————— 8

심 사 평

강동호(문학평론가)————— 9

김 숨(소설가) ————— 10

문지혁(소설가)————— 11

소유정(문학평론가)————— 12

윤성희(소설가)————— 13

목포시와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학과지성사가 후원하는 박화성소설상은 목포문학상 장편소설 공모를 개편하여 2023년 새롭게 출범했다. 어느덧 세 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 2026년 박화성소설상에는 5월 한 달간 총 169편의 장편소설이 접수되었다. 응모 마감 직후부터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소설가 김숨, 문지혁, 윤성희와 문학평론가 강동호, 소유정은 6월 초부터 응모작을 나누어 읽으며 약 2주 동안 본심작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2주에 걸쳐 본심에 오른 소설을 꼼꼼하게 살피고, 7월 9일 문학과지성사 6층 아카이브에서 본심 독회를 진행하였다. 응모작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인물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자전적 소설, 식민지기에서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방대한 역사적 시간을 담아낸 시대작 등이 적지 않게 응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심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 「땅의 영혼들」 「소녀들의 유랑극단」 「오르페우스의 키스」(제목 가나다순)로 총 4편이다. 대상작 자체의 편수가 많지 않아 심사위원들은 4편의 소설 모두에 대해 골고루 이야기 나누었고, 각 작품이 가진 미덕과 한계를 충분히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과 「소녀들의 유랑극단」 두 소설 중 하나를 당선작으로 삼는 쪽으로 의견을 추렸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신입 형사의 좌충우돌 경찰국 적응기를 그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은 이야기의 순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소녀들의 유랑극단」은 여성 소리꾼의 일생을 통해 판소리와 여성국극의 역사를 그려낸 작품으로, 식민지기부터 시작하여 한국전쟁 이후까지, 한국 현대사를 통과하는 시간을 차근차근 짚어나가고 있었다. 담아내고자 하는 시대 배경이나 이야기의 분위기가 아주 다른 두 작품이니만큼 장단이 극명히 갈렸다. 접전 끝에 심사위원들은 「소녀들의 유랑극단」을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 박화성 소설상은 장편소설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흡인력과 서사를 갖춘 작품에 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소녀들의 유랑극단」의 작가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건필하시길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분량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준 응모자들에게도 격려와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강 동 호(문학평론가)

올해 박화성소설상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작품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깊이 논의를 이어간 작품은 세 편이었다.

「땅의 영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현대사의 굵직한 흐름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하위 주체들의 삶과 땅의 역사를 끈질기게 복원하려는 야심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역사소설의 형식을 빌려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온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를 ‘땅’이라는 구체적인 소재에 집약해 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방대한 역사적 소재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주제의식이 지나치게 전면에 드러나고, 그에 따라 서사의 유연함과 가독성이 다소 희생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경찰 조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유머러스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독특한 작품이었다. SF적 상상력과 현실 풍자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작가 특유의 경쾌한 입담과 가독성 높은 문체는 끝까지 독자를 끌고 가는 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별 에피소드의 재미에 비해 작품 전체를 하나의 장편으로 묶어주는 중심 서사가 다소 약해, 읽고 난 뒤 남는 서사적 응집력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소녀들의 유랑극단」은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여성 국악인들의 삶과 예술을 복원해 낸 작품이었다. 판소리와 여성국극이라는 우리 문화사의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외되어온 유산을 중심에 놓고, 시대적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과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성들의 궤적을 밀도있게 그려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개별 여성 인물들의 생애는 단순한 일대기를 넘어 전통예술의 계승과 여성 공동체의 연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로 확장되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긴 시간에 걸친 인물들의 삶을 병렬적으로 서술하면서 소설적 구조가 다소 단순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방대한 시대를 배경으로 수많은 인물의 삶을 안정적으로 엮어내고,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여성 예술인들의 삶을 설득력 있는 장편 서사로 구현해낸 작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 숨(소설가)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을 읽으며 소설적 상상력은 뭘까, 소설적 서사는 뭘까, 내내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그 질문을 가지고 본심에서 읽고 토론한 작품은 「땅의 영혼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 「오르페우스의 키스」 「소녀들의 유랑극단」이었다.

「땅의 영혼들」은 전라남도 고창과 함평의 간척지에 기대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백 년이라는 긴 시간을 배경으로 굵고 강렬하게 풀어 쓴 소설이었다. 주제 면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사실주의 리얼리즘으로 풀어 쓴 박화성의 소설 세계에 가장 가까이 가 닿아 있는 작품이기도 했다. 지역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역사적 실제 사건을 개인사라는 미시사와 결합해 끈질기게 재구성해낸 역작이었다. 대하소설이 되고자 함에 더 집중했다라면 훨씬 맛깔스럽고 개성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은 2050년을 시간 배경으로, 경찰국 지능범죄수사과 신참 경찰이 주인공이다. 사기가 생계인 어설픈 사기꾼들의 이야기는 어딘가 짠하고 슬퍼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처럼 읽혔다. 그러나 2050년에 도래할 세상과 인간의 정체성을 충분히 상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사기꾼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연이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하고 나열돼 있어 평면의 그림이 되고 말았지만 정이 가는 작품이었다.

「오르페우스의 키스」는 침묵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에 더해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기시감이 드는 나른함과 문장 때문이었을까. 자기만의 스타일과 문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씌어진 작품 같았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살아낸 여성 소리꾼들에 대한 이야기인 「소녀들의 유랑극단」은 본심에 올라온 작품 중 구성과 서사가 가장 깔끔하고 안정적이었다. 영화적인 상상력과 전개, 속도감. 개연성이 떨어지는 곳이 더러 있었지만 당선작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심에 오른 작품들뿐 아니라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의 쓰고 퇴고한 시간에 박수를 보낸다.

문 지 혁(소설가)

예심에서 만난 작품은 역사소설, 미스터리, 판타지, SF 등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가 많았다. 다만 독자와 소통하기보다는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더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미 너무 익숙해진 소재와 형식도 적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죽음과 소녀와 문어」였다. 읽으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소설이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이 그랬다. 스톡홀름과 서울을 오가며 12세 소녀 ‘나라’가 쓴 자신의 이야기가 파편적으로 연결된 이 작품에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다 읽은 뒤에 끝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무엇인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

최종 심사에서 주로 논의된 작품은 「땅의 영혼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 「소녀들의 유랑극단」이었다.

먼저 「땅의 영혼들」은 작가의 공력이 잘 느껴지는 역작이었다. 역사를 바라보는 크고 넓은 시선, 거시사와 미시사를 오가는 솜씨, 사실적인 방언의 활용도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여기와의 연결 지점을 찾기 어려웠고, 역사를 기록 이상의 발견으로 전환하는 통찰과 도약이 아쉬웠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은 근미래의 경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움니버스 형식으로 다루는데, 충분히 무거울 수도 있는 장면들을 가볍게 다루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다른 응모작 사이에서 이 가벼운 경쾌함은 그 자체로 변별점이자 매력이었다. 다만 시대와 설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SF적으로 다소 진부하며, 사건의 경중이 없어 플롯이 쌓여가지 않는다는 점 등은 경쾌함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이었다.

「소녀들의 유랑극단」은 전체적으로 잘 짜인 작품이었다. 처음에는 불협화음 없이 안전한 화음만 내는 정확하고 올곧은 소설이라서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읽을수록 이 작품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성, 예술에 대한 통찰, 판소리와 여성 명창이라는 소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라고 믿게 됐다. 이 믿음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품과 인물,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세계를 향한 작가의 다정하고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응원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소 유 정(문학평론가)

박화성소설상을 심사하며 나는 새로운 종류의 경이를 배울 수 있었다. 우선 소설의 압도적인 분량에 대한 경이. ‘장편소설’에 수여하는 상임을 잊지 않은 듯 응모작 대부분은 두께가 상당하였다. 그 안에는 어떤 이, 인물만이 아닌 작가 본인과도 겹치는 이의 삶의 흔적들이 녹아 있기도 했다. 또 하나, 정성에 대한 경이. 심사를 할 때면 투고작에 깃든 응모자의 손길을 헤아리게 된다. 정성스럽게 철한 가지런한 원고를 쥐어보며 지금이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라 기원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본심에서는 네 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땅의 영혼들」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창의 간척지·소작지 역사를 다루는 소설이다. 주인공의 후손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토지 소유 문제와 소작농의 투쟁을 그린 이 소설은 역사적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서사 전개가 탄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약 반세기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보니 다소 장황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2026년에 이 소설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았을 때도 또렷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르페우스의 키스」는 고도로 자동화된 사회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오류 및 구조적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설정이 흥미로웠으나 주체가 불분명한 오류처럼 소설 역시 모호한 서술이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낭만성이 지나치게 부각된 몇몇 장면이 오히려 소설적 매력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본심에서 오래 논하였던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은 장점이 분명한 소설이었다. 신입 형사의 경찰국 적응기답게 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트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점이 좋았다. 마치 시트콤을 보는 듯했고,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도 재미있어할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각 장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장편소설이라기보다 파편적인 이야기 조각 모음 같다는 느낌을 끝내 지울 수가 없었다. 소설의 어느 한 부분이 빠진다면 결함이라고 여겨질 만큼 구성 요소들의 밀도가 촘촘해야 하는 것이 장편소설이라면, 이 작품은 그 기준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지지할 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했다.

「소녀들의 유랑극단」은 여성 소리꾼의 일생을 담은 작품이다. 이 소설은 식민지기부터 분단 이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의 태동과 대중문화의 변화 속에서 여성 소리꾼들이 어떻게 예술을 계승했는지를 처절하게 다룬다. 주인공에 집중된 서사로 읽히지 않아 중심인물 중 누구에게 초점화를 해야 할지 아리송한 물음표를 남기기도 하였으나, 안정된 문장과 탄탄한 서사 그리고 지역색이 드러나는 배경까지 이점이 골고루 많아 박화성소설상 당선작으로 삼기에 무리가 없어 보였다. 인고의 시간이 담긴 소설을 쓴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진하시기를 바란다.

윤 성 희(소설가)

논픽션 작가인 존 맥피의 『네 번째 원고』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내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조리 자신이 없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혔다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로 써내지 못할 것 같고 작가로서 재능이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내 글이 실패작이 될 게 뻔히 보이고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다면, 당신은 작가임이 틀림없다.” 글쓰기가 막힐 때면 나는 이 말을 종종 생각했다. 커다란 바위가 앞길을 막았다는 느낌이 들 때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끊임없이 인물과 대화하는 것. 존 맥피는 이어서 이런 말도 남긴다. “반면에 사물을 남달리 본다고 자부하며 당신의 일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면, 스스로 ‘글 쓰는 일을 사랑한다’며 떠들고 다닌다면, 당신은 망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 글에 자신감을 느끼며, 제 글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글을 쓴다면, 당신은 좋은 작가라는 착각에 빠진 것일 수 있다. 투고된 장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쓴 분들이 자기 글을 너무 재미있어한다는 것이었다. 소설의 인물보다 작가의 의도가 먼저 드러나는 글들, 인물보다 작가가 먼저 앞으로 달려가는 글들. 그런 장편이 많았다. 자기 글을 의심하며 더듬더듬 질문하는 소설이 보이지 않았다. 그게 아쉬웠다.

본심에서 논의된 소설은 다음과 같았다. 「소녀들의 유랑극단」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 「땅의 영혼들」 「오르페우스의 키스」.

「땅의 영혼들」은 고창군의 간척 농지와 소작인의 삶을 다룬 역사소설이었다. 백 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는 만큼 스케일이 방대했다. 소작인들의 삶이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공들여 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역사 속에 있는 개인들의 미시 서사를 그린 게 장점이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인물들이 커다란 주제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장점이 잘 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오르페우스의 키스」를 읽는 동안 내내 안개가 가득한 동네를 산책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안개를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춰진 풍경을 상상해보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다. 이들이 하는 일, 이들의 고민이 모두 추상의 세계에 머문 듯했다. 조금만 더 선명한 세계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조건」은 2050년을 배경으로 신참 형사가 만난 범죄자들의 이야기다. 문장이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다. 2050년을 다루고 있지만 이 소설은 장르적 문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2050년이란 배경이 필요했다면,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에게 조금만 더 서사를 주면 어땠을까? 주인공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내부로 향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면 어땠을까? 그게 아니라면 경찰서에 잡혀 온

많은 군상을 하나로 묶을 큰 줄기의 서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선작으로 뽑은 「소녀들의 유랑극단」은 여성 소리꾼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이 소설은 초반에 세 명의 여성 소리꾼의 성장에 집중하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한초정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같이 판소리를 배우는 노수월과 황보선무가 그들이다. 그들의 우정과 야망 그리고 한국 현대사 속에서 갈라지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 소설의 주제를 짐작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한초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모이기 시작했다. 한초정은 동편제의 거장인 강만당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 인물이 된다. 성추행을 당한 한초정은 비슷한 아픔으로 소리를 포기한 엄마를 떠올린다. 그리고 결심한다. 한초정을 결심하는 인물로 만들면서 이 소설은 다른 힘을 갖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초정은 고민하고, 반응하고, 변화한다. 이 소설은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소리꾼의 목소리, 여성 예술가의 목소리, 전쟁 속 피란민의 목소리, 제도권을 벗어난 광대의 목소리. 그 수많은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곧 이 소설의 서사가 된다. 한초정의 목소리를 따라가보니 이야기가 굵이굵이 흘러가고 삶이 굵이굵이 다가온다. 뚝심 있게, 좋은 작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작가라는 신뢰가 간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제18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목 포 작 가 상



목 포 시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 목포작가상 심사평

심사위원장 오봉옥

심사위원 손홍규, 송경동, 송승환, 전병호

2026년 제18회 목포문학상 공모에 본상은 22명(시·시조 7명, 소설 1명, 희곡 1명, 평론 2명, 수필 4명, 아동문학 7명), 작품상은 65명(시·시조 37명, 소설 13명, 희곡 2명, 수필 8명, 아동문학 5명)이 응모하였다. 본상과 작품상 모두 각 부문 심사위원들이 1차로 검토한 작품을 최종심에 올려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26년 위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심사 본상과 작품상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먼저 목포작가상 본상 수상작으로 김효은의 평론집 『징후의 시학, 빛을 열다』를 선정했다. 이 책은 현재 한국시의 현장을 깊고 넓은 아르고스의 시선으로 응시하는 비평집이다. 김효은의 비평은 우리 시대의 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문제의식과 문체로 이를 집요하게 탐구한다. 특히 시의 행간에 담긴 징후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성실함과 충직함을 견지하며 문학의 윤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비평 정신은 ‘목포’라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도 깊이 맞닿아 있다. 바다를 향해 열린 외부이자 내륙이 시작되는 내부, 삶의 경계와 접점에서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기지의 경험을 성찰하는 장소로서의 목포는 김효은의 비평적 시선과 깊이 호응한다.

『징후의 시학, 빛을 열다』는 바로 이 문학의 장소에서 등대의 빛을 밝히고 희망의 뜻을 펼치려는 시적 윤리를 굳건히 실천한 비평집이다. 그 치열한 문제의식과 성실한 비평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목포작가상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목포작가상 작품상 수상작으로 「어머니 그리기」를 선정하였다.

이번 응모작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완성도와 매끄러운 문장을 보여주었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창작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시의 외형을 갖추는 일은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그러나 잘 다듬어진 문장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삶을 통과한 언어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아마추어적 야성미를 만나는 일은 오히려 드물었다.

심사위원들이 「어머니 그리기」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마늘 까던 엄지손톱’, ‘갈치 비린내 뻗 행주’, ‘베개 솔기에 박음질처럼 끼어 있는 흰머리’, ‘모서리가 닳은 농협 비밀번호 쪽지’ 등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길어 올리기 어려운 구체적인 형상들이다.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생활의 사소한 흔적을

통해 한 사람의 몸과 노동, 사랑과 부재를 생생하게 불러낸다.

무엇보다 이러한 힘이 한 편에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응모한 세 편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시인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지금의 거칠고 생생한 감각을 잃지 않은 채 자신의 언어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더욱 단단하고 개성 있는 시세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을 담아 「어머니 그리기」를 목포작가상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